



“혼란스러울 청춘들에게 힘이 됐으면”

연극 무대서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 설레고 신기해...감사한 마음뿐이죠 청춘들에게 공감 얻고 있다니 다행



까마중 작가

“당신은 지금 그대로 찬란해. 그러니까 더 이상 찬란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돼”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연극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공연 팬들의 대학교 발 걸음을 재촉하게 만드는 이 연극의 원작은 알려진 대로 동명의 웹툰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이다. 2017년 여름에 네이버웹툰에 연재를 시작해 2019년 봄까지 3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찬차나’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제목답지 않게 ‘찬란한 바람’을 일으켰다. 그런데 정작 이 웹툰을 쓰고 그린 작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다. 자신의 작품이 연극으로 만들어져 두 번째 일어난 ‘찬란한 바람’이 대학로를 휩쓸고 있지만, 원작자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 웹툰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의 원작자 까마중 작가와의 인터뷰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다.

-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공금해 하고 있다. “웹툰 ‘찬차나’ 완결이 다가오는 시점부터 미국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 지금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더불어 웹툰 차기작도 구상하고 있다. 여러 캐릭터와 소재가 떠올라 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독자님들과 소통하



웹툰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에는 까마중 작가의 ‘상처’를 하나씩 나누어 가진 인물들이 등장한다. 찬란, 유, 진, 시은, 도래(아래에서부터 시계방향) 다섯 명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은 요즘 연극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 | Con.T

고 싶어 열린 웹툰을 연재하고 싶다가도, 작업과 마감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다신 연재하기 싫어지곤 한다.(허허)” - 까마중이란 필명은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중학교 때 내 삶이 잡초 같다고 생각했다. 마침 ‘까마중’이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잡초 이름을 알게 되면서 이메일 아이

디로 사용해왔다. 웹툰작가가 되고 나서야 까마중은 그냥 잡초가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도 나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그 열매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괜히 호 못하기도 했다. 호기심에 까마중 액을 주문해 먹어본 적도 있는데, 다시 주문해 먹진 않을 것 같다.”

- 자신의 원작이 공연으로 탄생되었다. 어떤 느낌인가.

“찬란, 도래, 유, 진, 시은이는 ‘상처’를 중심으로 설정된 캐릭터들인 만큼 내게 애뜻하다. 이 인물들이 무대 위에서나마 실제로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이 설레고, 신기하다. 연극으로 각색하기도, 무대로 만들기도, 연기하기도 힘든 이야기였을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웹툰 속 연극부원들처럼) 최선을 다해 공연을 해내고 있는 연극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

- 혹시 찬란이는 작가의 이야기가 아닌가.

“찬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실제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비슷하다. 작품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의 정도나 폭력의 정도를 순화하고 축약해 표현했다. 하지만 찬란이의 대학생 활과 나의 대학생생활은 많이 달랐다. 나도 많이 바쁘고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즐길 건 즐겼고, 도래처럼 늘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찬란이와 내 실제 성격도 많이 다르다. 찬란이는 작품 주제에 맞게 설정된 인물일 뿐, 나는 아니다.”

- 연극 ‘찬차나’ 역시 웹툰과 마찬가지로 많은 청춘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한 것 같다. 이 작품 속에서 성장하는 개인들을 통해, 타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울음’이라기 보단) 보다 성숙한 관점을 제시하고 싶었다. 특히 자기 자신, 타인,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러울 청춘들에게 참고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연극 ‘찬차나’가 청춘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니 다행이고 기쁘다.” hmyang0307@donga.com

시간



●메이저리그(한상범 저 | 지성사)=메이저리그에 대한 야구 팬들의 관심은 높아져만 가는데 정작 메이저리그 관련 전문 서적은 책방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이다. 야구를 종교로 삼고, 뺏속에 야구사랑을 새긴 골수 야구마니아가 쓴 메이저리그의 ‘거의’ 모든 것을 담았다. 메이저리그의 탄생과 발전 과정부터 야구의 4대 요소(타격 피칭 수비 베이스러닝)에 이르기까지 메이저리그를 ‘보는’ 단계에서 ‘음미’하는 단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안내한다. 158쪽지를 야구의 이닝에 맞춰 9회와 연장전 구성에 따라 배치했다. 과연 야구마니아가 쓴 책인지 싶다.



●염화미소 꽃, 웃음(황수로 저 | 수류산방)=화장 황수로의 자전 에세이가 한국 궁중꽃박물관 개관에 맞춰 수류산방에서 출간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

채화장이자 한국궁중꽃박물관 초대 관장인 황수로의 삶과 꽃에 대한 이야기를 모았다. 열정 넘치는 장인의 꾸밈없는 글과 작품을 통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궁중채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꽃 문화 전통이 한결 가깝게 다가온다. 어려서부터 문학을 흠모하고 예술을 사랑한 장인이 오랜 세월 동안 한 편 한 편 직접 써 두었던 수상과 기억의 모음이다. 세련되거나 정교하지는 않지만 8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뜨겁고 강인하게 살아 온 한 여성의 통찰과 환상을 만나게 된다. 양형모 기자

소프라노 김성혜가 선사하는 ‘환상의 아리아’

내달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한국 데뷔 10주년 독창회 무대

11월 21일 오후 8시,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화려한 고음의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주인공은 소프라노 김성혜. ‘아임 콜로라투라, 아임 김성혜(I’m Coloratura, I’m Kim Sunghye)’라는 이번 독창회의 타이틀에는 그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동시에 묻어 있다. 김성혜에게 이번 무대는 각별하다. 올해는

그의 한국 데뷔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를 기념해 오페라 아리아 콘서트를 준비했다. 각 별함은 하나 더 있다.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아티스트 육성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실제 무대에 데뷔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타이틀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번 리사이틀에서 김성혜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선보일 예정이다. 벨칸토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레퍼토리들로 프로그램을 꽉 채웠다. 벨리니 ‘몽유병의 여인’ 중 아미나가 부르

는 ‘아! 믿을 수 없어라... 아! 내 마음 속의 충만한 기쁨’, 오펜바흐 ‘호프만 이야기’ 중 ‘새들은 나뭇가지 사이에’, 라크메의 ‘종의 노래’ 등이 객석으로 쏟아진다. 도니제티 ‘달메르무어의 루치아’의 ‘저 부드러운 음성’에서는 저 유명한 루치아의 핏빛 절규를 토해낸다. 알려져 있듯, 이 노래의 또 다른 이름은 ‘광란의 아리아’다.

특별 게스트로 바리톤 한명원이 무대에 올라 김성혜와 듀엣으로 베르디 ‘리골레토’의 아리아도 들려준다. 지휘자 김덕기가 이끄는 코리아람오케스트라가 바그너 ‘로엔그린’, 마스카니 ‘카말레리아 루스티카나’ 등의 서주와 간주곡도 연주한다. 양형모 기자



소프라노 김성혜

눈에 확 띄는 춤추는 댄싱배너



- 키 180cm 광고판 가로83cm 세로51cm
- 유선 1대당 54만원, 부가세 별도, 220V 사용
- 무선 1대당 70만원, 배터리 및 충전기 포함
- 지지대(밀판)는 30kg 강철로 바람많은 제주도에서도 사용가능하나 바닥 접착시공, 피스시공시에는 별도의 설치비 있습니다.
- 지지대에서 위로 쓰는 라이트 추가시 1대당 8만원

모델명과 광고판 게재문안, 배송 발일일 주소, 라이트, 바닥시공여부 등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국민은행 063337-04-003723 (주)에녹스드림

전국대리점 영업대리점 02)3296-1184, 010-2511-6349 서울 중랑구 공릉로27가길 28-5 에녹스빌 1층

반려동물 캠프 친구 투자자 구함

5000만원씩 3명
서울경기1명, 지방2명
반려동물국제연구소
010-9647-7580

행복과 성공의 비밀

아들과 딸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지혜!
“아버·엄마가 아들·딸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책!”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모르는 세상 속 이야기!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인생 가이드 책!
현재는 선물이다!
저자 양정규 | 12,000원
번역하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행복과 성공의 문을 여는 지혜를 선물한다!
전국 유명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에녹스 (02)3296-1184

무지개 싱글모임

☆비즈니스 친교도 하고 짝공도 찾고☆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구용☆

- 일시: 10월 27일(일요일) 오후 6시
- 장소: “명동보쌈 보리밥”
-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5-11 (주차가능)
2/4호선 사당역 7번출구 직진
150미터 전방 최윤정 치과 옆건물
- 회비: 남성 3만/여성 1만 5천 (식사 + 맥주 + 노래방)

문의 갈충로회장 010-9298-3771

신용불량자 요금연체자

갤럭시 S10 5G / 아이폰XS MAX 할부개통 가능

휴대폰 현금 당장 쓰실분
현금 100~390만원 즉시지급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백화점 상품권증정
010-3914-3777
전국 출장 가능 (제주도 가능) (주)참바론통신

자연인과 ● 현지인과

현장체험

요양/휴양/무료/유료
국내 ■ 해외
바닷가나 ☆ 산속에서

좋은친구들

1800-3390
010-4299-3389

아플때나 ● 건강할때